

식민지기 대만과 조선의 공업화 비교

A Comparison of Industrialization in Taiwan and Korea in the Colonial Period

김낙년(Kim, Nak-Nyeon; 동국대)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realities of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es experienced by Korea and Taiwan.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of assimilating the colonial economic system into that of the metropole through the acceleration of the mass movement of goods, capital and people propelled both colonial economies towards similar directions. The facts such as increasing export orientation of agriculture and deepening trade dependence in the colonial economies, increasing inflow of Japanese capital and Japanese transplanted factories, and growth of native industries (i.e. Korean or Taiwanese-owned industries), are several examples of this point.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ssimilarities in the initial colonial conditions between Korea and Taiwan; consequently, we can find several points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lonial economies. In the case of Taiwan, there was a processing industry for agricultural products that had existed from the pre-colonial period, and early Japanese expansion into this area triggered its development into an export industry. Consequently, compared to Korea, linkages between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were strengthened, and until the 1920s, showed high growth rates. However, even after the 1930s, the Taiwanese manufacturing sector did not develop beyond a structure centered on the agricultural processing industry. In comparison, Korea in the same period entered full-scale industrialization, absorbing momentum from the injection of Japanese capital. Further, even when comparing the forms of manufacturing production, Korea had a far higher proportion of household industries, and displayed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for self-consumption activities. This originated in not only the low level of Korea's commercial economy but also the peculiarities of agricultural labor, which was preponderantly seasonal.

1. 머리말

해방 전 대만과 조선은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지였으며 그 시기에 모두 일정한 공업화를 경험하였다. 식민지에서 공업화가 나타난 것은 흔한 현상이 아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은 식민지의 주체적 조건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가진 특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식민지의 주체적 조건에 관해서는 식민지기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전통사회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究明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는다. 여기서는 먼저 일본의 지배체제가 식민지 경제에 준 충격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체제는 자국의 제도를 식민지에 이식하여 본국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식민지기 초기부터 토지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관세와 통화제도를 일본에 통합시켰다. 재산권에 관련된 일본의 민법이나 상법 등의 제 법령도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식민지에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 점에서는 대만과 조선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 결과 양 식민지는 일본에 대하여 완전한 개방체제하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본국과 식민지간에 무역은 물론 자본이나 노동력의 이동이 촉진되는 특질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전통경제에 변화를 가져온 일차적인 요인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통합은 대만과 조선경제의 전개과정에 매우 유사한 특징을 부여하였다. 대일 무역이 급증하여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로 변모하였다는 점, 이 과정에서 전통산업인 농업이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등장하였다는 점, 일본자본이 주도하는 移植工業화가

전개되었다는 점 등은 양 식민지에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것은 무역이나 일본자본 유입과 같은 外來의인 충격이 식민지경제의 변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식민지공업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만과 조선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것은 식민지가 같은 체제 속에 편입되어 유사한 외래적 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初期條件이 상이한 만큼 그것이 식민지경제에 초래한 변화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지기 대만과 조선에서 전개된 공업화의 실태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식민지기 대만 또는 조선의 공업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지만 양자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 溝口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식민지 경제통계의 정비를 시도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그 성과는 본고에서도 활용하였다. 木村는 대만과 조선의 민족공업 실태를 비교하여 대만의 민족공업이 조선보다 앞서 성장하였으며 조선에는 자급적 성격의 가내공업이 광범위하게 잔존하였다는 점,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 식민지화 이전에 이미 대만의 상품경제화가 조선보다 선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山本는 대만과 조선의 경제적 성과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대조적인 추이를 보였던 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자본형성의 격차에서 찾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 중에는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자료를 이용하여 그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에 관해서도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하 제 2 절에서는 먼저 식민지기 대만과 조선의 경제성장을 개관한 다음, 무역의 충격이 식민지경제에 초래한 변화를 비교 고찰한다. 제 3 절에서는 공업생산의 형태를 공장(일본인과 현지인 공장)과 가내공업으로 나누어 공업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제 4 절은 공업화의 자금조달 면을 고찰하여 특히 일본자본의 유입이 식민지 공업화의 전개양상에 어떠한 차이를 초래하였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 절은 이상에서 발견된 제 사실을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다만 지면이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 2 절은 표만을 제시하기로 하고, 제 5 절은 앞의 영문 요약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또한 표와 각주 등도 상당히 생략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힌다.

2. 무역과 공업화

표 1 에서는 두 식민지 모두 무역과 투자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차이점으로서는 무역의존도와 투자율에서 대만이 이른 시기부터 조선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무역수지에서 대만의 흑자에 대해 조선은 일관되게 적자였다는 점, 대만은 일찍부터 2차산업의 비중이 높았지만 1930년대에 조선과의 격차가 급속히 좁혀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 에서는 대만 쪽이 공업제품의 수출의존도가 조선보다 훨씬 높은 반면 조선은 상대적으로 내수산업의 성격이 강하였다는 점, 대만은 상위 품목의 대부분 농산물 가공업이며 농공간의 연계가 강하였다는 점, 국내에서 소비되는 공산품 구성에서도 대만이 조선보다 수이입품의 비중이 크게 높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대만>		국내총지출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자본형성	수이출	수이입
증가율 a	1913-37	4.3	3.1	3.8	6.6	6.4	4.9
구성비 b	1920	100.0	68.7	5.7	20.1	32.4	27.0
	1930	100.0	66.7	6.6	16.3	38.7	28.3
	1938	100.0	63.9	6.3	16.6	48.5	35.4
<조선>							
증가율 a	1912-37	3.7	3.2	5.7	8.0	9.6	7.8

구성비 b	1920	100.0	93.2	3.9	5.0	12.6	14.6
	1930	100.0	89.2	6.1	7.7	19.3	22.2
	1938	100.0	84.3	5.1	16.6	29.6	35.5
산업별			대만			조선	
국내총생산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구성비 c	1920	37.8	24.6	37.6	58.4	6.2	35.4
	1930	36.7	27.9	35.5	45.0	11.4	43.6
	1940	36.0	30.3	33.7	43.1	26.4	30.4

주: 1) a는 1912-14년(조선은 1911-13년)과 1936-38년의 각 평균값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2) b는 해당 년을 중심으로 하는 5개년의 평균 구성비율임. 단 1938년은 그 해의 값임.

3) c는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의 해당 년을 중심으로 하는 3개년 평균치임.

4) 2 차산업에는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업을 포함.

자료: 一橋大學 경제연구소의 추계(www.ier.hit-u.ac.jp/COE/Japanese/index.html 참조)

다만, 조선의 국내총지출은, 溝口?梅村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일부의 오류는 정정)

<표 2> 주요 공업제품의 생산액, 수이출액 및 수이출의존도

<대만>	생산액	수이출	수이출율	<조선>	생산액	수이출	수이출율
1936년	a	b	b/a	1935년	a	b	b/a
주요품목(업종)	(백만엔)	(백만엔)	(%)	주요품목(업종)	(백만엔)	(백만엔)	(%)
사탕(식료)	171.7	166.1	96.8	술(식료)	72.0	0.1	0.2
차(식료)	11.5	10.3	89.4	인조비료(화학)	38.1	14.9	39.1
통조림(식료)	7.0	7.6	108.3	장유, 원장(식료)	30.1	0.1	0.3
비료(화학)	5.7	0.0	0.7	면직물(방직)	27.1	1.2	4.4
목재(제재)	5.6	2.2	38.9	동물유(화학)	20.3	5.5	27.0
알코올(화학)	5.5	5.8	106.3	짚제품(기타)	19.8	-	-
목제품(제재)	5.1	0.1	1.0	생사(방직)	18.3	14.2	77.5
과자류(식료)	5.1	-	-	공업약품(화학)	15.8	4.0	25.5
인쇄물(인쇄)	4.9	0.2	4.2	방적(방직)	15.0	-	-
모자(기타)	3.8	2.4	64.1	동물질비료(화학)	14.5	7.8	53.9
면류(식료품)	3.8	-	-	철강(금속)	14.3	12.3	86.0
연와(요업)	3.6	0.0	0.1	가공유(화학)	13.5	8.5	62.6
정미(식료)	3.3	-	-	가공수산물(식료)	13.4	1.6	11.7
시멘트(요업)	3.2	0.2	7.2	제봉(기타)	13.0	1.9	14.7
이상의 합계	239.7	195.0	81.3	이상의 합계	325.1	72.1	22.2

공업전체	312.6	213.2	68.2	공업전체	567.7	141.0	24.8
비중(%)	76.7*	50.3**		비중(%)	53.5*	13.1**	

주: 1) 품목별 공업생산액 자료에서 상위 14개 품목을 선정.

2) 공업생산액에는 전기 가스업 제외. 수이출액에는 일본산품의 재수출액을 제외.

3) *는 전체 공업생산액중 상위 14개 품목의 비중임. **는 전체 수이출액 중의 상위 14개 품목의 비중임.

4) 수이출율이 100%를 넘는 것은 수이출가격에는 유통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5) 대만의 정미업 생산액은 공임액이며, 그 생산품인 정미는 농산물로 간주함.

자료: 대만총독부, 『대만상공통계』, 1936;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5.

3. 공장과 가내공업

여기서는 공업생산의 형태를 공장과 가내공업으로 나누어 공업화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공업생산에 관한 통계에는 工場과 工産額에 관한 두 가지 계열이 존재한다. 공장통계에서 파악된 공장의 범위는 대만의 경우는 "직공 상시 5인 이상 사용하는 공장 또는 원동력을 가진 공장"이며, 조선의 경우는 "5인 이상의 직공을 사용하는 설비를 가진 공장 또는 상시 5인 이상의 직공을 사용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원동력을 가진 4인 이하의 제조장도 공장에 포함되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아 공장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하여 공산액 통계는 모든 공업생산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서 공장은 물론 거기에 들지 못한 家内工業이나 副業생산 또는 自家消費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파악된 범위가 넓은 공산액통계에서 공장통계를 빼면 공장생산과 가내공업 이하의 생산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대만의 경우 공장통계에 생산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내공업의 생산액을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먼저 표 3에 의하여 공업생산을 주도한 공장 및 그 직공 수(조선의 경우 종업원수)의 추이를 비교해보기로 하자. 공장 수는 대만 쪽이 많지만 고용된 직공 수는 조선 쪽이 더 많았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 원동력을 사용하는 직공 5인 미만의 소공장이 51-6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조선의 공장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규모를 고려한 공장의 밀도는 대만이 여전히 높았다. 다만 공장의 규모를 보면 조선 쪽이 더 컸다. 즉 공장당 직공수가 대만이 10인 남짓인데 비하여 조선은 1930년대에 24-39인이었다. 공장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50인 미만의 공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는 조선과 대만이 큰 차이가 없다. 100인 이상의 대공장수 추이를 보면 대만이 1929년에 101개소인데 비해 조선은 89개소(1932년)에 불과하였지만 1930년대 말에는 대만의 110개소에 비하여 조선은 328개소로 크게 늘어나 이 시기에 조선 쪽이 공장의 대규모화가 보다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現地人이 소유하는 공장의 비중을 보면 대만 쪽이 훨씬 높았다. 대만에서는 50인 미만 규모의 공장은 90% 전후가 대만인 공장이었는데 비하여 조선에서는 식민지 초기에 그 비율이 35%에 불과하였다. 규모가 클수록 일본인 공장의 비중이 높아져 200인 이상의 공장에서는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였다. 그 결과 대만에서는 '대공장=일본인, 중소공장=대만인'이라는 도식이 나타나는데 비해 조선에서는 대공장은 대부분 일본인 소유였지만 중소공장에서는

<표 3> 규모별 공장수 및 직공수 추이와 현지인공장의 비율(단위: 개소, %)							
<상단: 대만>	5인	5인-	50인-	100인-	200인	합계	직공수

<하단: 조선>	미만	49 인	99 인	199 인	이상	a	b(천인)
총수 1918 년						2,244	40.0
1929 년	2,979	2,610	106	73	28	5,796	62.9
1938 년	4,816	2,938	136	56	64	8,010	97.2
대만인공장(%)							b/a(인)
1918 년						84.7	17.8
1929 년	96.2	88.6	62.3	35.6	21.4	91.0	10.7
1938 년	96.4	86.7	54.4	42.9	4.7	91.0	11.9
총수 1912 년		246	30	13	9	298	17.4
1932 년		4,332	122	45	44	4,543	110.7
1939 년		5,771	366	188	140	6,465	270.4
조선인공장(%)							b/a(인)
1912 년		35.4	10.0	15.4	22.2	31.5	53.0
1932 년		56.4	32.8	26.7	11.4	55.1	23.8
1939 년		64.7	36.9	20.2	10.7	60.6	38.9
<p>주: 1) 공장의 정의에 관해서는 각주 6 참조.</p> <p>2) 조선의 직공수는 종업원수(단위: 천인)이며, b/a 는 1 공장당 직공(종업원)수임.</p> <p>자료: 木村光彦, 「臺灣·朝鮮の鑛工業」, 溝口·梅村 편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47-56 면.</p> <p>원자료는 대만과 조선의 「工場名簿」, 各년도.</p>							

도 일본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의 경우는 공장수의 증가가 매우 빨랐으며 100 인 미만 규모의 공장에서는 조선인 공장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져 대만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식민지기 대공장은 대부분 일본인이 투자한 것인 반면 중소공장에서는 민족공업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이는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만과 조선에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공장의 저변에는 가내공업이 광범하게 존재하였다. 조선에서는 1932-39 년간 가내공업생산에 관한 통계가 발표되었고, 전술하였듯이 공산액통계로부터 공장통계를 빼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지면의 제약으로 표의 제시를 생략). 그에 따르면 가내공업 생산액은 1920 년대 전반에 전체 공산액의 60% 전후를 차지하였지만 그 후 서서히 하락하여 1930 년대 말에는 23%로 나타났다. 공장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내공업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곧 가내공업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실질 생산액은 중일전쟁 발발 때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만에서는 가내공업의 실태를 드러내는 자료가 부족하며, 후술하듯이 조선에 비하여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았다.

이하에서는 1930 년대 중엽의 시점에서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하여 공업생산의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천착해 보기로 하자. 표 4 과 표 5 는 생산액이 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만은 300 만엔, 조선은 600 만엔) 이상인 품목을 뽑아 공장통계와 공산액 통계를 대비

〈표 4〉 대만공업 주요 품목의 생산현황(1936년)										
업종	생산액	품목	공장통계		공장	공산액통계				
(주요품목)	(백만엔)	비중	공장수	직공수	비중	제조장수	직공수	제조장규모		1인당생산
	a	(%)	c	d(천인)	d/f	e	f(천인)	f/e(인)	a/e(천엔)	a/f(천엔)
방직공업	4.4		82	3.7	43.0	2,043	8.6	4.2	2.2	0.5
금속공업	10.9		132	2.7	71.4	1,532	3.7	2.4	7.1	2.9
기계기구	7.7		242	3.5	68.9	921	5.1	5.6	8.3	1.5
요업	9.5		701	10.8	85.4	1,217	12.6	10.4	7.8	0.8
연와	3.6	1.2				399	6.1	15.3	9.1	0.6
시멘트	3.2	1.0				1	0.2	179	3,182	17.8
화학	28.5		484	4.9	71.5	1,287	6.9	5.3	22.2	4.2
비료	5.7	1.8				15	0.3	23.2	379	16.3
알코올	5.5	1.8				14	0.5	38.0	392	10.3
인쇄제본	4.9		169	2.7	97.3	284	2.8	9.8	17.2	1.8
인쇄	4.9	1.6				262	2.7	10.2	18.7	1.8
제재, 목재	10.7		366	2.8	33.6	2,907	8.2	2.8	3.7	1.3
제재	5.6	1.8				186	1.5	8.2	30.0	3.7
목제품	5.1	1.6				2,721	6.7	2.5	1.9	0.8
식료품	221.5		5,255	43.9	89.2	8,137	49.2	6.0	27.2	4.5
사탕	171.7	54.9				110	12.1	110	1,561	14.2
재제차	11.5	3.7				354	6.3	17.8	32.4	1.8
통조림	7.0	2.2				31	9.8	317	227	0.7
과자류	5.1	1.6				1,608	4.1	2.5	3.2	1.2
면류	3.8	1.2				902	2.3	2.6	4.2	1.6
정미업	3.3	1.1				4,162	9.5	2.3	0.8	0.3
기타	14.5		421	6.5	17.5	15,208	37.0	2.4	1.0	0.4
모자	3.8	1.2				1,135	157.5	139	3.3	0.02
합계	312.6		7,852	81.4	60.7	33,536	134.1	4.0	9.3	2.3

주: 1) 생산액이 300만엔(공업내 비중 1%) 이상인 품목을 선정함, 단 정미업은 공임액임.
2) 공산액통계에는 재제차와 시멘트의 제조장과 직공수가 누락되어 있어 1937년의 『공장명부』 수치로 보완함.
3) 모자업의 제조장수 및 직공수는 기타공업이나 합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게재함. 그 이유는 본문 참조.

자료: 대만총독부 식산국, 『대만상공통계』, 1936, 1938; 동, 『공장명부』, 1937.

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 공장통계가 생산액이 빠져 있는 등 조선에 비해 부실하지만 공산액 통계는 품목별로 생산액 이외에도 제조장수와 직공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제조장 당 직공수가 5인 미만인 품목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내공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나와 있지만 제조장수나 직공수가 빠져 있는 품목이 없지 않다. 또한 제모업의 경우와 같이 製帽業者가 제조장을 갖추지 않은 間屋商人으로서 주로 여자들의 가내부업(=內職)을 조직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즉 공산액 통계는 공장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들지 못한 가내공업 나아가 가내부업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인 생산형태를 포괄하고 있으며, 생산액의 파악에 주안점을 둔 만큼 제조장수나 직공수가 빠진 품목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 4은 表註에서 밝혔듯이 누락된 일부 품목을 『공장명부』의 수치로 보완하고 생산형태가 이질적인 제모업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대만의 가내공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장수는 1936년에 33,536 개소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에서 공장은 그 1/4에 조금 못 미치는 7,852 개소였다. 다만 직공수를 기준으로 보면 공장생산은 6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장생산액 자료가 없으므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알 수 없지만 공장과 가내공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컸을 것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이 보다 더욱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내공업의 비중이 큰 조선의 경우와 대비된다.

전체 제조장의 평균 규모를 보면 제조장당 직공수 또는 생산액은 각각 4인과 9.3 천엔으로 나타났다. 제조장의 규모는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제조장당 평균 직공수가 100인이 넘는 품목은 통조림, 시멘트, 사탕 3개 품목에 불과하며 5인 이하의 영세한 규모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이나 업종도 적지 않았다. 생산액 기준으로 제조장 규모를 구해 보아도 품목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직공 1인당 생산액을 보면 전체 평균은 2.3 천엔이며 업종이나 품목별로 수백엔(정곡, 기타공업, 방직 등)에서 17.8 천엔(시멘트)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의 수치에는 공장과 가내공업이 혼입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균치만을 가지고는 공장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는 가내공업이 어떠한 성격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다음의 사실은 대만에서 가내공업 종사자가 부업형태를 벗어나 專業化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표에서 제조장당 직공수를 공장과 가내공업으로 분리한 후 제조장당 평균 직공수를 구해보면 각각 10.4인과 2.1인으로 계산된다. 가내공업이라 하더라도 평균 2인 정도의 직공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가내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타공업(가내공업이 제조장수에서는 97% 직공수에서는 83%의 비중)의 경우 1인당 연 생산액이 390 원이었는데, 이를 가내공업 종사자의 평균 생산액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산액에서 만약 원료비와 인건비를 반반으로 가정하고 당시 여공의 임금이 日給으로 0.5 엔이었음을 고려하면 가내공업 종사자는 專業者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미업의 경우는 1인당 생산액이 346 엔으로 가장 낮는데, 이것은 다른 품목과는 달리 工賃額만이며 또한 정미공(남자)의 임금이 당시 일급으로 1 엔이었음을 고려하면 납득이 간다. 예외적으로 모자업은 1인당 생산액이 연 24 원에 불과한데, 이는 전술하였듯이 여자들의 內職으로 영위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대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 표 5를 이용하여 조선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은 1930년대에 공장통계가 충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내공업 통계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공산액 비중이 1%가 넘는 주요 품목이 23 개로서 대만에 비해 많은데, 이는 대만이 공업생산의 55%가

제당업에 집중된 데 비하여 조선은 그러한 품목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민간공장생산의 비중은 1935년에 56%(나머지 44%는 가내공업과 관영공장 생산액임)로 추계되었다. 선정된 주요 품목의 다수는 주로 공장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타공업 제품이나 일부의 식료품공업, 마직물, 목제품 등은 가내공업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장 내에서도 그 규모가 품목별로 매우 커다란 격차가 있었다. 공장의 평균 從業者數가 100인 이상인 품목이 10개나 존재하며 특히 철강, 인조비료, 방적의 경우는 1000인 또는 2000인 전후의 규모였다. 그들의 생산액 규모도 대만에 비하여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일본자본의 진출에 의해 근대적 설비를 갖춘 공장이었다. 이에 비하여 식료품, 기타제조업, 목제품, 인쇄업, 기계기구공업의 경우는 종업자수 20인 전후의 규모였다. 공장 생산규모의 격차가 매우 컸지만 소규모 공장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공장의 종업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2.4천엔에 그쳤다. 이는 대만의 가내공업을 포함한 직공 1인당 생산액과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대만과 비교할 때 주목되는 차이점은 소공장의 저변에 다시 가내공업이 광범하게 존재했다는 점이다. 가내공업 제조호수의 누계가 1935년에 1800만호를 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농가호수 298만호(전체 호수 414만호)의 6배(전체호수의 4배)를 넘는다. 이것은 한 농가가 평균 6개 품목을 자가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면직물을 필두로 하는 방직업(428만호), 식물유를 포함하는 화학공업(151만호), 장유나 된장 및 제분을 비롯한 식료품공업(718만호), 짚제품이나 제분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공업(544만호)이 각각 수백만의 제조호수를 가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농가는 이들 제품의 상당수를 자가 생산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가내공업의 호당 연 생산액은 평균 11엔에 불과한데, 이 중에는 2천엔이 넘어 상품생산인 것으로 보이는 품목(주류, 동물질비료)도 있지만 방직(6엔), 화학(19엔), 식료품(13엔), 기타공업(7엔)의 평균생산액이 10엔 전후에 불과하여 자가소비적인 성격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35년 황해도의 직물 가내공업에 관해서는 판매용과 자가소비용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면직물(호당 생산액 7엔)의 72%, 견직물(호당 생산액 15엔)의 71%, 마직물(호당 생산액 6엔)의 80%가 자가소비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만과 비교할 때 조선의 가내공업의 성격은 매우 달랐다. 대만의 경우는 가내공업이라

〈표 5〉 조선공업 주요 품목의 생산 현황(1935년)										
업종	공산액	품목	공장생산						가내공업	
(주요품목)	(백만엔)	비중	생산액(b)	공장수	종업원	공장규모 및 1인당생산			호수	호당(엔)
	a	(%)	b/a(%)	c(개소)	d(천인)	d/c(인)	b/c(천엔)	b/d(천엔)	e(천호)	(a-b)/e
방직공업	82.3		68.1	347	28.3	82	161	2.0	4,276	6
면직물	27.1	4.5	73.2	21	3.1	150	944	6.3	2,802	2
제사	18.3	3.0	74.4	113	11.9	105	121	1.1	397	12
방적	15.0	2.5	100.0	5	5.3	1,053	3,009	2.9	-	-
마직물	7.4	1.2	10.6	18	0.5	27	44	1.6	721	9
금속공업	27.0		79.1	239	7.2	30	89	3.0	6.2	874
철강	14.3	2.4	100.0	1	2.3	2,256	14,321	6.3	-	-
기계기구공업	11.5		57.4	324	7.4	23	20	0.9	61.3	52
요업	17.6		85.4	336	10.0	30	45	1.5	7.4	323

시멘트	9.5	1.6	100.0	2	1.7	854	4,772	5.6	-	-
화학공업	147.8		79.8	1,161	43.2	37	102	2.7	1,508	19
인조비료	38.1	6.3	99.5	3	5.6	1,851	12,639	6.8	21.0	10
동물유	20.3	3.3	59.5	28	3.6	128	431	3.4	38.0	215
공업약품	15.8	2.6	100.0	7	0.7	99	2,250	22.8	-	-
동물질비료	14.5	2.4	50.8	813	18.6	23	9	0.4	3.5	2,042
가공유	13.5	2.2	100.0	3	0.7	245	4,502	18.3	-	-
고무제품	10.7	1.8	100.0	66	8.8	133	162	1.2	0.01	250
제지업	7.2	1.2	66.4	167	2.2	13	29	2.2	8.2	282
제재, 목제품	8.2		33.2	156	2.2	14	18	1.2	13.6	366
인쇄제본	12.7		95.5	285	7.2	25	43	1.7	-	-
인쇄업	12.4	2.0	100.0	274	7.0	26	43	1.7	-	-
식품공업	169.4		43.7	1,101	18.4	17	67	4.0	7,181	13
주류	72.0	11.8	53.8	629	7.5	12	62	5.1	12.0	2,779
장유, 된장	30.1	5.0	8.8	70	0.7	11	38	3.6	5,530	5
수산물제조	13.4	2.2	13.1	121	1.7	14	15	1.1	75.0	155
과자 등	12.1	2.0	39.8	78	1.4	17	62	3.5	91.6	79
제분	11.5	1.9	59.9	14	0.3	19	493	26.7	878	5
제당	8.5	1.4	100.0	1	0.1	145	8,522	58.8	-	-
면류, 누룩	8.1	1.3	43.1	18	0.3	15	193	13.1	107	43
정곡	-	-	-	1,225	30.5	25	206	8.3	-	-
기타제조업	91.0		11.2	296	5.9	20	34	1.7	5,440	7
짚제품	19.8	3.3	0.9	21	0.2	9	8	1.0	3,139	6
제봉업	13.0	2.1	23.9	113	2.0	18	28	1.5	690	14
합계	567.7		55.7	4,245	129.8	31	74	2.4	18,493	11

주: 1) 공산액 600 만엔(공업내 비중 1%) 이상의 품목임. 단 전기가스업은 제외하였고 정곡은 참고로 게재함.

2) 공장통계(생산액, 공장 및 종업원수)는 공산액과 비교하기 위하여 제면, 제재, 정곡, 가공임을 제외한 수치임.

3) 공장생산액(b)은 지면의 제약상 게재하지 않고 공산액에 대한 비율만 게재함.

4) 공산액에는 관영공장분이 포함되지만 공장통계에는 그것이 제외된 민간공장의 수치임.

자료: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5; 동, 「소화 10년 가내공업통계」, 『조선총독부 조사월보』,

1937.3; 동, 『조선무역월표』, 1935.12.

하더라도 전업의 종사자로 영위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생산물도 기본적으로는 시장판매를 위한 것이었다. 모자업은 예외이지만 問屋商人에 의하여 조직되어 그 생산품은 수출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조선의 경우는 농가의 가구원이 다양한 가내부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품도 자가소비되는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식민지화되기 이전에 조선은 자급자족 경제였는데 반하여 대만은 대륙으로부터의 이민에 의해 상업적인 농업개발과 특산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등 화폐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경제였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은 식민지기 초기부터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공업제품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출발점에서 이미 시장경제의 발달정도가 달랐다는 사실과 함께 대만이 조선에 비해 농업노동의 계절적 편중이 작았다는 점도 가내공업의 양상을 달리하게 만든 요인이라 생각된다. 대만은 기후조건상 1년 내내 작물재배가 가능하며 재배시기가 다른 다양한 작물의 輪作法이 발달하여 경지이용률이 상당히 높았다. 稻作의 경우 二毛作이 일반화되어 2期作率이 70%라는 높은 수준에 달하였는데, 20% 전후 수준에 불과한 조선과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그 결과 대만의 호당 勞動投入日數는 1935년에 449일이었는데 비하여 조선은 194일로서 그 1/2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호당 경지면적의 차이(대만의 2.1町步에 비해 조선은 1.6町步)를 감안하더라도 경지에 대한 노동투입이 훨씬 많았다. 그에 따라 농업의 노동생산성에서는 큰 격차가 없었지만 토지생산성에서는 대만이 조선의 두 배에 달했다. 이것은 농업노동의 계절적 편중이 심한 조선에 비해 대만에서는 경지이용률이 높아 농업노동이 通年化되어 있었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가 다양한 상품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현금수입을 얻을 기회가 많았던 대만에서는 굳이 자가소비를 위한 가내공업을 영위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즉 농업에서도 전업화와 상품화가 진전되었고 공업제품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에 비하여 조선에서는 긴 농한기가 존재하며 그 기간에는 노동의 기회비용이 0에 접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가내공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더라도 현금지출을 줄이기 위한 농가의 자가생산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1930년대 공장생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저변에 자가소비형의 영세 가내공업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농업 외 취업기회의 확대로 농촌 과잉인구가 줄어드는 해방 후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4. 투자자금의 조달

식민지에 공업화가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전술한 무역의 급속히 성장과 함께 본국 자본의 식민지투자라는 외래적인 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업화를 위한 자본형성을 일본자본에 크게 의존하였음은 대만이나 조선 모두 공통된 현상이지만 그 양상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식민지와 일본간의 '域外收支'를 추계한 山本の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식민지투자가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지를 개관하기로 하자(표 6). 추계된 기간 동안에 총독부移轉 총액을 보면 조선에서는 7억엔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반면 대만에서는 오히려 자금의 유출이 일어났다. 장기자본 총액은 대만과 조선이 각각 6.7억엔과 25억엔 유입된 것으로 추계되어 식민지투자가 조선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대만은 1910년대나 1920년대에 걸쳐 증가하였다가 1930년대에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거의 모든 항목에서 자금유입이 가속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특히 1930년대의 식민지투자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대조가 뚜렷하다. 이를 자금유입의 항목별로 보면 대만은 식민지 초기인 1900년대를 제외하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주도적이었다. 주식과 사업투자 형식의 자본유입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채도 민간의 제당회사가 발행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조선은 총독부移轉과 국채 형식으로 조달한 정부자금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社債도 대만과 달리 정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정부자금 중심의 자금유입 구성은 1930년대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표 6> 주요 항목별 자금 순유입과 자본형성의 추이(단위: 백만엔)									
	총독부	장기자본 유입				자본형성	정부투자	a/b	
<대만>	移轉	국채	社債	주식	사업투자	소계 a	b	비중(%)	(%)
1900-1909	29	33	-	22	-	55	104	70.9	52.5
1910-1919	41	1	9	101	35	146	390	35.7	37.5
1920-1929	-	80	74	68	155	377	1,087	23.1	34.7
1930-1939*	-79	16	-19	62	32	91	1,293	25.8	7.0
계	-8	130	64	253	223	669	2,874	39.2	23.3
<조선>									
1910-1919**	180	110	18	49	34	211	345	55.8	61.0
1920-1929	340	209	205	83	127	624	978	52.4	63.8
1930-1939*	199	433	291	690	268	1,681	2,060	47.2	81.6
계	719	752	513	823	429	2,516	3,383	51.8	74.4

주: 1) 기간별 누계치임. 2) (-)는 자금 순유출을 의미함.
3) *은 b 이하 열에 관해서는 1930-38 년이고, **은 1911-19 년임.
4) 정부투자 비중이란 자본형성 중에서 총독부 및 지방정부 자본형성의 합계치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山本有造, 『日本植民地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1992, 부표 1 및 부표 3;
溝口 梅村 편,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284-85 면.

한편 식민지의 자본형성의 규모와 추이를 보면(표 6) 1920년대까지 그 총액에서는 대만이 조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930년대 이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투자율(=자본형성/국내총지출)에서는 대만이 조선보다 훨씬 높았으며 1930년대 말에 가서 양자가 근접하였음은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표 1 참조). 그런데 전술한 일본자본의 유입이 이러한 식민지 자본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까? 물론 유입된 일본자본이 모두 식민지의 자본형성에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 재정정보조금과 군사비를 포함하는 총독부이전은 식민지경영비로 지출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입된 민간자본도 모두 고정자본에 투자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우 거친 방법이지만 표 6(a/b 항목)과 같이 유입된 장기자본이 모두 자본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대만은 자본형성의 23%, 조선은 74%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의존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수준은 과대평가된 것이지만 대만과 조선에서 일본자본의 역할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투자가 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정부투자 비중은 초기에 높았고, 민간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하락하였는데, 그 평균은 대만(39%)에 비해 조선(52%) 쪽이 상당히 높았다. 정부투자 분야는 중점의 차이는 있지만 철도를 비롯하여 도로, 항만, 치수 등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식민지의 농업개발이나 공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재정 자립도에서도 양 식민지는 차이가 있다. 대만은 초기에 재정 자립화를 달성하였고 193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대만의 재정잉여금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이었다. 대만의 풍부한 전매수입과 조선에 비해 높은 조세부담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비하여 조선은 일본으로부터의 국채발행 수입에 크게 의존하였다. 전술한

철도투자는 이를 재원으로 한 것인데, 조선이 재정자립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비해 정부투자 비중이 높았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한편 민간자본의 전체적인 실태에 관해서는 알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식민지에 본점을 둔 회사 자본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들 회사의 납입자본금 추이를 보면 1914년, 1924년, 1934년, 1940년에 대만은 각각 0.8억엔, 3.6억엔, 3.2억엔, 5.5억엔(이중 전기업을 포함한 공업회사는 0.6억엔, 2.1억엔, 2억엔, 3.4억엔)이었으며, 조선은 같은 시기에 각각 0.4억엔, 2.6억엔, 4.3억엔, 16억엔(동 0.03억엔, 0.3억엔, 1.4억엔, 8.1억엔)으로 증가하였다. 대만은 일찍부터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자본금이 조선보다 훨씬 높았지만 그 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갔으며, 조선은 특히 1930년대 이후 회사자본금의 비약적인 증가로 양자의 위상이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사자본금의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조선의 경우 금융, 운수, 상업 등의 유통부문과 농업 중심에서 광공업과 전기업 중심으로 구성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공업내부에서도 화학을 비롯하여 식료품, 방직, 금속공업에 투자가 많았다. 광업과 금속공업과 같이 전시의 요구에 의해 투자된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내에 형성된 시장을 지향한 투자였다. 대만의 경우, 공업의 비중이 식민지 초기부터 일관되게 높았고, 1930년대에 업종구성이 다소 다양해지기는 하였지만 식료품공업(특히 제당업)의 압도적인 우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대만의 공업화에는 수입대체적 성격이 별로 없고 공업제품 소비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 것은 그 때문이다.

회사자본금의 민족별 소유구성을 보면, 대만의 경우 전체 회사 중에서 일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자본금 비중은 1929년에 76.5%였다. 대만인 소유 회사의 자본금은 21.9%였으며 나머지 1.6%는 외국인 소유였다. 조선의 경우 일본인 회사의 자본금 비중은 1938년에 88.7%로 대만에 비하여 일본인 소유 비중이 더욱 높았다. 다만 공업회사에 한정하면 대만은 91%, 조선은 88%였다. 일본인 회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별 소유구성은 식민지기를 통하여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인 소유의 회사라 하더라도 그 자본금이 모두 일본에서 유입된 것은 아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식민지에 거주하는 주민(일본인 포함)이 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 식민지에서 축적된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우,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 실려 있는 각 회사의 대주주를 집계하여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39년에 납입자본금 5만엔 이상인 회사(1,614사)를 대상으로 하여 파악된 주주 분류별(조선인, 일본인, 조선내 법인, 일본내 법인)별 납입 자본금 구성은 각각 9%, 26%, 20%, 45%로 나타났다. 1925년의 동 비중이 각각 12%, 60%, 8%, 20%였음을 고려하면 개인보다는 법인주주가 회사자본금의 확대를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대기업이 조선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자본투자가 활발하였음을 뜻한다. 다만 그 투자자금 중에는 조선에서 축적한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본질소는 조선의 공업이나 전기업 분야에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린 조선 최대의 주주로 부상하였는데, 그 과정에는 자회사인 조선질소가 올린 막대한 수익의 재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개인주주 중에는 대지주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들이 1939년에 조선인과 일본인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중에서 각각 47%와 23%를 차지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기에 농업개발 과정에서 지주에게 축적된 농업잉여의 일부가 회사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대만의 경우는 제당자본의 진출이 활발하였던 시기를 제외하면, 조선에 비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유입뿐만 아니라 회사자본금의 증가도 상대적으로 정체하였다. 이 시기에는 제당업을 비롯한 회사 순익금의 재투자자와 같은 대만 내 자본축적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38년의 전체 회사의 순익금은 약 5,600만엔이었는데 그 중의 44%가 배당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가 사내 유보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자료가 입수

가능한 1930 년대를 통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회사 순이익금의 67%를 식료품공업이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제당업이 社內留保를 재원으로 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자금으로 제당회사는 자체에 대한 재투자뿐만 아니라 특히 1930 년대에는 다른 업종으로도 투자분야를 확대하였다. 예컨대 대만 4 대 제당회사는 1930 년대에 제과업과 같은 관련 식품회사만이 아니라 고무, 펄프, 화학품과 같은 업종으로도 활발히 진출하였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투자한 회사의 소재지가 대만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이 더 많았다는 점인데, 이는 대만에서 축적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오히려 해외로 유출되었음을 뜻한다.

또 하나는 농업잉여의 역할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대만 농업생산물의 상품화율(즉 생산액에서 자가소비를 제외한 것의 비율)은 1911-15 년에 54%에서 1936-40 년에 71%로 상승하였으며, 이 중에서 다시 농가의 공산품 소비재나 농업관련 투입재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순 농업잉여는 전 시기에 걸쳐 생산액의 20% 전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일부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농업 이외 분야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자본금에서 대만인이나 조선인의 소유비중이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농업잉여는 주로 소규모 회사나 회사형태를 취하지 않은 현지인 공장 등에 투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